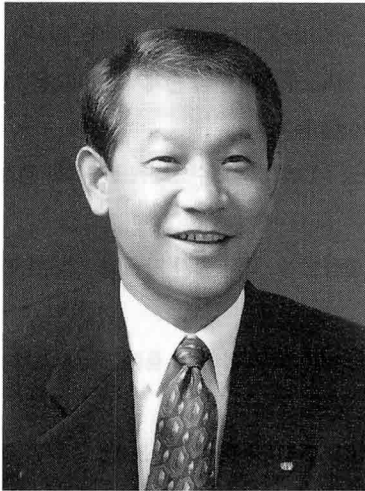


전문업체 육성을 통해



올해 산업경기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작년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전경련이 발표한 97년 산업경기 전망에 따르면 조사대상 30개 업종 중 통신, 환경, 해외건설 등 3개 업종만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나머지 업종은 보완 수준에 머물거나 침체될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이 한국경제를 이토록 어렵게 만들었을까? 고임금 저효율, 취약한 기술경쟁력, 국가정책의 오류 등 여러가지 예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느 한 분야가 아닌 전산업 분야에 걸쳐 산재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밝은 전망을 보이고 있는 정보통신산업분야는 어떠한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인터넷 인트라넷 등의 급속한 확산과 공공부문의 시스템통합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내수시장은 두자리 수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하드웨어 부문 및 통신서비스 분야는 멀티미디어화의 급진전과 함께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잇따른 등장으로 통신기기 및 통신서비스 시장도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예상만을 놓고 볼 때 정보통신 산업은 그야말로 장미빛으로 그려진 황금시장이다. 그러나 최근의 시장상황은 정보통신 산업이 결코 장미빛이 아님을 보여준다. 세계무역기구(WTO) 통신협상의 타결로 첨단기술은 물론 서비스의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통신업체들과 당장 국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루게 되었기 때문이다. 90년대부터 국내 실정법의 빈틈을 비집고 한국시장을 파고들던 다국적 기업들이 98년부터는 아무런 장애없이 국내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신장비업계는 이미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있고 외국 업체들간의 격전장이 되어 있으며, 기반기술이 부족한 국내업체들은 이러한 해외업체에 기술을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경쟁력을 강화하자

국가간 시장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제품의 품질과 성능만이 세계시장을 차지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자국의 제품과 기술력만을 고집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기업제품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높은 외국기술 의존도를 하루 속히 우리의 기술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국산제품을 활용해주어야 한다. 중견기업체 및 중소기업체에서 신제품 생산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각 분야에서 기반기술과 전문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되고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것은 엄청난 국가적 낭비이다. 이러한 낭비를 제거하기 위하여 하루 빨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업체간 기술공유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기술을 갖고 있는 대기업과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조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하루 빨리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특정 프로젝트를 한 회사가 전 분야를 담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효율과 질적인 면에서도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 기업체간의 협력은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또한 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도 효과적이다. 향후 정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대기업과 전문성을 갖춘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체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수행은 물론 전문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통신개방시대의 생존전략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안을 모색하고 지혜를 짜내야만 한다. 즉 대국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정보통신 산업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하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가를 검토해 방침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코 텍 시 스템

대표이사 남 석 우